

‘비밀 보장 안되는’ 주민소환투표… 개선 필요

■ 투표율 미달 구례군수 소환투표로 본 문제점

투표소 등장 자체가 ‘반대자’ 낙인 우려 예산·행정 낭비… 주민 ‘갈등의 골’ 심화

지난 4일 치러진 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치러진 다섯 차례의 주민소환투표가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주민소환 투표제도가 비밀투표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무리한 주민소환청구는 예산 낭비와 함께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상처’를 남기면서 주민 분열에 따른 상처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비밀투표’ 등 제도 개선 필요 = 지난 4일 실시된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 2만2999명 중 191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8.3%를 기록했다.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 진행 요건이 성립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투표율 미달로 투표합조차 열여보지 못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경계 하남시장(31.1%), 제주시사(11%), 경기 하남·과천시장(17.8%), 강원 삼척시장(25.9%) 등도 모두 투표율 미달을 기록했다.

구례군을 포함해 5곳의 투표율 중 구례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은 것은 유권자들이 현 단계에 대한 주민소환을 반대해 투표하지 않거나 주민소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는 것

체를 꺼리는 이유도 있다.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연스럽고 무산됨에 따라 투표소에 가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장을 소환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을 선출하는 투표와 달리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 ‘비밀투표’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이름대로 ‘성향’을 알고 있는데다가 주민 수가 2만여 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투표 정족수를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

환투표의 경우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직면할 수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편투표, 인구조사와 같은 방문투표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대리투표, 비용낭비 등의 부작용과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방식을 포함해 주민소환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낭비 등 부작용 초래 = 이번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인건비와 용품 구입비 등으로 3억8000여 만원의 구례군 예산이 소모됐다. 하지만, 투표합조차 열여보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된 셈이다. 이후에 주민소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사용한

비용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 군수의 직무정지로 인해 군정에 제동이 걸린 것도 군 행정의 공백을 초래했다.

주민소환투표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주민소환이 무산될 때까지 2년여 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과 반대운동 추진본부 측 간의 찬반이 이어지면서 실익 없는 소모전과 함께 인구 2만인 구례군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 때문에 무리한 주민소환청구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구례군은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 치유에 나서야 하는 게 우선 과제로 남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근혜 퇴진하라”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 등 광주지역 5개 중단 종교인들이 5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한 뒤 ‘종북몰이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 정세균 정개특위 위원장에 주호영 의원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참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참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내년 6·4지방선거 D-180... 제한·금지 사항

단체장 사업계획·실적 홍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공공기관 행사 외 참석 사진·인쇄물·벽보 등 배포·게시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부터는 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포할 수 없고, 정당 및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5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포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카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선전탑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내현 민주당 의원 예결위 질의

“자동차·부품소재 산업 피해 우려 정부 TPP가입 전면 재검토해야”

(현대평안경제동반자협정)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TPP 가입은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상회하는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가입’은 WTO와 같이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정말로 협상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TPP를 추진하고 있다면 정부가 TPP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참여가 가능한 단계가 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TPP 참여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TPP 가입은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상회하는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가입’은 WTO와 같이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정말로 협상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TPP를 추진하고 있다면 정부가 TPP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참여가 가능한 단계가 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TPP 참여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때 정 총리는 “산업별 피해를 적극적으로 검토, 신중한 추진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창립... 본격 활동

김무성·문재인·안철수 의원 등 28명 참여

국회 의원모임인 ‘매니페스토 연구회’가 5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창립식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민주당 문재인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2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공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 공약의 실현 시기가나 예산 확보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협약’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회장을 맡은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후보들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 1년을 겪으며 대선 당시 공약과 집권 후 실천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슬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시유나건물(8층) 17억4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 5천), 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 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 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삼우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 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 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 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군청 민원실 인근 대로변 2층 주거지 492㎡(149) 은행2억 감정 3억6천에 매도, 조정가능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대지 539㎡(163)8500만원
- 함평군 영일 앞마을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대 가능 8억8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71430평 평당 3천원 2억2천
- 광산구 신성동 6차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0 수익 증속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변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0 수익 매도 9억6천
- 순천시 가곡동 상업지 177평 대출 3억2천 매도 3억6천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통게이트 입구 차량 진입 원룸 2425㎡(734)공시기에 매도 3860만원
- 북구 풍향동 재개발 확정지역 3층 주거지 1184㎡(358)공시가 4억 은행등 4억 매도 천만원
- 상충동 원룸 건물 대지 169㎡(51)건평 278㎡(84)원룸 1개 스피리 4개 보증금 1억원 월 110 매도 2억7천
- 대인동 4층 식당 대지 149평 건물 438평 은행6억5천 매도 8억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스피리 92개 허가, 주택가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 매매, 상충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 40선, 매대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높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상충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 매수신용대리업체 (법인가)
근린시설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물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물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물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물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물161㎡ 감정가7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물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 및 창고

- ▷ 북구 대충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김진동 송덕리 냉동, 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194억 최저가27억

토지 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1750㎡ 상당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 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 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